

주에 우리는 시대마다 강대국에서 일어나는 바벨탑의 저주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시대 미국에서 살게 하셨는지 그 이유와 결론과 축복을 붙잡았다. 이 시대 초강대국 미국이 바벨탑의 저주를 온 세상에 퍼트리는 나라가 되느냐 아니면 전 세계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는 나라가 되느냐는 우리에게 달렸다고 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나 한 사람 만이라도 바로 서라. **일단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은 이 한가지가 다르다.** “나 한 사람만이라도”의 중심을 가지고 산다. “나 한 사람 이라도 바로 살아야겠다”.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다. “나 한 사람만이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 “나 한 사람 만이라도 깨어서 기도하겠다”, 이들이 파수꾼이요, 전도자요, 제자이다.

1.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시대마다 바벨탑의 저주를 만드는 강대국에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쓰셨다는 것이다.

성경에 일곱 강대국에서 쓰임받은 사람들이 다 한 사람이었다. 그 한 사람을 중심으로 팀을 이룬 것이다. 실제로 일곱 강대국이 우상을 퍼뜨려 온 세상에 영적 문제와 저주를 만들 때에 쓰신 인물들을 보라. 애굽에서 요셉과 모세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인 것이다. 블레셋 시대에는 사무엘, 다윗 한 사람이다. 아람이 이스라엘에 고통을 줄 때는 엘리야, 엘리사 한 사람으로 한 것이다. 앗수르 시대에는 히스기야와 이사야 같은 한 사람을, 바벨론에서는 다니엘을, 페르시아에서는 에스터를, 로마에서는 바울 같은 인물을 세운 것이다. 본문의 아브라함은 그 바벨탑의 저주가 처음으로 시작된 강대국, 갈대아우르 땅에서 부름 받은 것이다.

2. 여기서 왜 한 사람이었을까라는 의문이 생긴다. 많은 사람은 안 되는가? 많으면 좋다.

문제는 항상 다수가 하나님의 뜻과는 틀린 길을 걸어왔다는 것이다.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일 것이다. 그래도 상관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 한 사람만으로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갔다는 것이다.

1)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은 세상처럼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탄식을 알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며, 하나님과 통하는 한 사람만으로도 세상을 살리고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창조의 능력이다(사60:22) 약한 자, 지혜없는 자, 배경없는 자들을 쓴 이유가 그것이다(고전1:26-29) 사람들이 하나님 능력을 보아야 한다

2) 그것이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다.

나 한 사람이라도 스스로 속지 마라. 나는 힘이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도와주는 자도 없기에 안 된다고 생각하기에 속는 것이다. 혼자 아니다. 그 분이 함께 하신 것이다. 내가 능력도 배경도 없기에 그 분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도 너를 망하게 할 수 없고, 너 한 사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다(사6:13의 거룩한 씨).

3)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한 사람이 그냥 한 사람이 아니다. 그 한 사람을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는 증인으로, 복음을 위해 생명 건 제자로 훈련시켜 쓰시겠다는 것이다. 중요한 일일수록 많은 사람이 나서면 안 되는 일들이 있다. 그것이 비밀이다. 전쟁에서도 중요한 일에는 많은 사람을 안 보낸다. 한 사람이 백을 대신하고 천을 대신 할 사람으로 훈련시켜 조용히 가서 하는 것이다. 그들이 제자다(막3:13-15). 이번에 전도자의 집중 훈련은 그런 면에서 중요하다. 개인적으로 문제 있는가? 문제 아니다. 훈련이다. 나를 들어 쓰시기 위해 하나님 방법으로 훈련시키는 것이다.

3. 나 혼자만이라도 세가지 제대로 훈련하라.

1) 나 혼자만이라도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내야 한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을 잡으라.

① 아브라함을 불러 네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다.

그 가나안이 그리스도의 언약이다. 아직 오지도 않은 그리스도를 붙잡기만 했는데,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복의 근원으로 삼아 창대하게 하고 큰 민족으로 세우겠다는 것이다. 나와 내 가문을 향한 축복의 언약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는 것이다. 완전 승리의 언약이다. 너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전도와 선교의 언약, 세계복음화의 언약이다.

②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왜 나를 이렇게 축복하셔야 하나?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처절히 고난을 당함으로 모든 죄, 저주, 운명, 사단, 지옥 심판을 끝낸 것이다. 어떤 문제 있는가? 문제 아니다. 축복이다. 이거 체험하는 것이 같보리 체험이다.

2) 나 혼자만이라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믿음으로 끝내야 한다.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붙잡으라.

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다. 우리의 행위와 노력과 열심보다 어려운 것이 이것이다.

아브라함을 왜 기뻐하셨나? 믿었기 때문이다(롬4:3).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면 자랑할 것이 있는데,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어떻게 믿었는가? 아무도 도와 줄 수 있는 자가 없기에 믿었고(사51:2),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고(롬4:18), 자식의 생명을 놓고 믿었다(히11:19)

히스기야가 앗수르 군대가 쳐들어 왔을 때(왕하19:14-19), 죽을 병에 걸렸을 때(왕하20:5) 믿을 때에 끝났다.

② 우리 안에 계속 되는 영적 문제들이 언제 끝나나? 믿을 때이다(벧전5:8-9, 찬송 “주 믿는 사람 일어나”)

그 믿음이 언제 생기겠는가? 내 안에 말씀이 각인되고 있을 때이다. 내 믿음의 근거이다. 내가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을 때이다(막9:29). 나 같은 사람 살리는 일을 할 때이다(막16:17-18). 이것이 3오늘이다.

3) 나 혼자 만이라도 오직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의 절대 결론을 붙잡는 것이다.

① 아브라함이 언약을 알고, 믿은 정도가 아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행위가 나온 것이다.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그 땅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났다고 했다. 그리고 5절에는 마침내 가나안으로 들어갔다고 했다. 그 순종에서부터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 것이다.

② 하나님의 절대 결론은 나를 세상 살릴 증인으로 세우는 것이다. 그것이 전도와 선교이다.

특히 전도와 선교에서는 절대 순종이다.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가야 한다. 그래야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린다. 내 현실, 내 기준, 내 원하는 것에 안 맞아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순종하겠다고 할 때만 성령이 일하시고, 세상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마26:39). 그들이 참 전도자, 참 제자이다.

결론-나 혼자만이라도 절대 언약을 붙잡는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으로 이 시대 미국 땅에서 바벨탑의 저주를 막는 참 전도자로, 증인으로, 제자로 쓰임받기를 축복한다.

